

노인의 행복한 삶을 돌보는 국어교육

— 노년기 문예 활동과 청소년 봉사학습을 중심으로

이재기 |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76회 전국학술대회(2022. 04. 16)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노년기 발달 단계의 특성과 문예 활동을 통한 행복의 추구
- III. 노인 문예 활동 프로그램의 지향과 원리
- IV.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이 행복에 이르는 경로는 다양할 것이다. 의식주라는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또는 더욱 윤택한 의식주 생활을 누리는 것),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또는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여 몸의 활력과 성취감을 체험하는 것),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정신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또는 자아를 완성하고, 정신적·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공유하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국어교육은 이러한 행복의 추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식주라는 생존의 절박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의식주는 ‘생존의 긴급성 문제’가 아니라 ‘행복의 선택 문제’가 되었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들은 모두 삶의 외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외적 측면에 대한 추구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인가? 인류라는 종(種)을 제외하면 생존의 긴급성을 넘어서 잉여와 과잉을 추구하는 동물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自然)스럽지 않다고 볼 수

도 있다. 또한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지는 마음의 구조는 소비 사회, 경쟁 사회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쟁의 정점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 질 수 없다.¹⁾ 문예 활동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복의 추구 방식을 성찰하게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행복의 저장소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찰과 깨달음의 지점에서 ‘마음의 장애와 절망을 극복하고, 자아를 완성하고, 정신적·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문이 열릴 것이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완성’과 ‘절망’은 예외적인 사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아 완성은 뛰어난 또는 교육을 많이 받은 또는 금욕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야 하고 이를 수 있는 마음 행위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 행복을 느낀다면 그 때 우리는 자아 완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절망도 신체적, 심리적 파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따라서 자아 완성은 한번 도달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처럼, 몸가짐처럼, 아이 돌봄처럼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나름의 요령으로 추슬러야 한다. Foucault(2001/2007)는 자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아의 기술’, ‘삶의 공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예 활동에 속하는 글읽기, 글쓰기, 대화하기도 자아 완성과 절망 극복을 도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²⁾

1) 김우창(2006: 176)은 “사람이 참으로 독자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거기에는 비교의 기준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적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행복의 독자성, 고유성, 개별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보다 쉽게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복 추구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넓게 깊게 인정하는 사회적 에토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2) 이 글에서 ‘문예 활동’은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작품 창작·감상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자 언어, 구술 언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가

이 글에서는 ‘우울한 노인’ 얘기도 하겠지만, 이보다는 ‘행복한 노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자 한다. ‘우울한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굳어지면, 이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에토스가 되어 노년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논리 또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명랑한 노인, 유쾌한 노인, 행복한 노인의 이미지와 에토스를 널리 유포하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³⁾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우울하기만 한 노인, 유쾌하기만 한 노인도 있겠지만 많은 노인은 이 둘의 경계에 있거나 둘을 오가며 살고 있을 것이다. 우울한 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 절망과 우울에서 벗어나 유쾌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유쾌한 노인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더 큰 유쾌함을 누릴 수 있다면, 유쾌함과 우울함의 경계에 있는 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 유쾌함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활동’에 글쓰기, 글 읽기, 대화하기와 같은 문예 활동이 포함된다면, 우리 사회는 ‘노인의 행복을 돌보는 국어교육’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학교 밖 구성원 중에서 노년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생의 단계에서 노년기가 가장 길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는 자아 완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동조적(syntonic) 향의 확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에 적기이다. 또한 이전 시기의 이조적(dystonic) 향을 회복하거나 극복하는 데도 적기이다. 행복의 가능성에 주목하였지만 노년기는 행복과 불행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노년기를 어떻

리킨다.

- 3) 노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에토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노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회고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정적 현실’을 긍정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회고하면 ‘긍정적 현실’이 구성된다. 그 역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실제(reality)는 주체의 해석 방식에 따라 달리 구성되며 주체의 해석 방식은 사회적 통념 또는 사회적 에토스의 영향을 받는다.

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의 질이 매우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문예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동체의 지향으로 ‘동질 세대 간,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의존성 강화’와 ‘봉사 학습에서의 상호성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문예 활동 프로그램이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세대 공존 문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는 본인 세대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대의 행복 추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II. 노년기 발달 단계의 특성과 문예 활동을 통한 행복의 추구

Erikson & Erikson(1982/2020)은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인간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각 단계에서 인간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맞는데 심리사회적 위기는 동조적 항과 이조적 항이라는 대립 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동조적 항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것이 ‘기본적 덕목’이며, 이조적 항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것이 ‘핵심적 병리’이다.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 완성(Integrity) 대 절망(Despair)’이란 대립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 완성을 토대로 출현하는 기본적 덕목이 ‘지혜’이고, 절망을 토대로 출현하는 핵심적 병리가 ‘경멸’이다. II장에서는 문예 활동이 동조적 항을 유지·강화하고, 이조적 항을 회복·극복하여 노년기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⁴⁾

4) 태선경·민지훈(2012: 366)은 ‘노인 독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1)노인 독서를 통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획득한다. 2)노인 독서를 통해 인생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3)노인 독서를 통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고 있

1. 노년기의 자아 완성, 문예 활동을 통한 강화

각 발달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여기서 파생되는 기본적 덕목과 핵심적 병리는 해당 단계에서 처음으로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의 발달/미발달을 계승, 내함하고 있다. 예컨대, 노년기의 자아 완성은 이전 단계의 동조적 향의 연속선상에 있다. 따라서 노년기 자아 완성은, 이전 단계 동조적 향인 ‘기본적 신뢰(유아기) → 자율성(유년기 초기) → 주도성(놀이) → 근면성(학령기) → 정체성(청소년기) → 친밀(청년기) → 생산력(성인기)’의 보완, 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문예 활동은 이러한 동조적 향의 보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대화하기를 통해 타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을 수 있으며, 글쓰기⁵⁾와 그 결과인 창작물의 공유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도성, 자율성을 발휘하며 생산성과 근면성을 체감할 수 있다.

Erikson & Erikson(1982/2020: 48)은 “인간 존재가 상호 보완적인 세계의 조직화 과정에 매 순간 의존한다.”고 하였는데, 세 개의 조직화 과정이란 1)생물학적 기관의 위계적 조직화(신체 구성), 2)자아 통합에 의한 경험의 조직화(정신적 과정), 3)개인의 상호 의존성의 문화적 조직화(사회적 과정)을 말한다. 이때 개인적 문예 활동은 자아 통합과 경험의 조직화(정신적 과정)

다. 1)과 3)은 동조적 향의 유지 및 강화와, 2)는 이조적 향의 극복과 관계가 있다. 노인을 학습 대상으로 삼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예컨대, 노인 작문, 노인 화법, 노인 문학, 노인 문법 등)을 설계한다면, 이와 같이 동조적 향과 기본 덕목(자아 완성, 지혜), 이조적 향과 핵심 병리(절망, 경멸)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5) 김지혜(2021)는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사 교육이 노년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실제 적용한 서사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나를 돌아보기’, ‘노년과 마주하기’, ‘행복한 노년의 삶 설계하기’, ‘나’를 표현하기’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으면서 노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에, 문예 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는 개인 간의 상호 의존성 강화(사회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02-103)에 따르면, “자아 완성은 일관성(coherence)과 완전함(wholeness)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일관성과 완전함을 방해하는 것이 1)신체 기능의 약화(신체적 조직화), 2)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대한 기억의 일관성 상실(정신의 조직화), 3)사회적 생산성 쇠퇴(에토스의 조직화 과정)이다. 1)은 노년기에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나, 2)와 3)은 문예 활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정신의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일관성 상실에 대항하는 것이 완결성(integrity)의 추구이다. “완결성은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경향을 가리킨다. 노년기에 잠재적 절망에 맞서는 방어 수단으로 의사(疑似) 통합이라 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신화화가 일어남을 인정해야 한다.” 글쓰기는 과거와 현재 경험을 이어주어 기억의 일관성을 돕고, 과거의 신화화라는 의사 통합을 도와 완결성을 체험하도록 이끈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04)은 “자아 완성이란 한 개인의 탁월한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합하는 방식을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공동체적 경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모든 노인이 삶을 통합하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년기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더 잘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문예 활동 모임에서 청소년은 노인에게서 서로 동떨어진 시간들과 각자의 다양한 추구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아 완성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속한 사회적 에토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면, 활발하고 지속적인 문예 활동 모임은 각자의 자아 완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에토스로서 작동할 것이다.

Erikson & Erikson(1982/2020)은 자아 완성을 돕는 소수의 의미 있는 타자에, 노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

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잊지 못할 ‘소수의 타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배움의 시기, 질주의 시기를 벗어난 노년기는 이러한 소수의 타자를 기억해내고, 발굴하여 대면하기에 좋은 때이다. 글읽기, 글쓰기와 같은 문예 활동은 이러한 소수의 타자를 기억해내고, 만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억과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타자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타자에게는 아픈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지점의 발견에서 어느 정도 삶의 통합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Erikson & Erikson(1982/2020)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출현한 경향은 이후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달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인생의 세 번째 단계인 ‘놀이기’에서 나타나는 놀이는 운동 경기로 발달한다. 신체적 놀이이든 마음·정서의 놀이이든 우리를 집중시키는 모든 활동에는 놀이의 성격이 있다. 과학자의 실험하기, 농부의 농사짓기, 의사의 수술하기, 건축가의 집짓기, 교육자의 가르치기 등이 그 예이다. 글쓰기, 글읽기, 대화하기 등과 같은 문예 활동도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문예 활동은 놀이의 확장과 발달의 한 형태이다.⁶⁾ 한편, 문예 활동에는 삶에 대한 충동과 욕망, 표현의 욕망 등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예 활동은 삶의 욕망, 표현 욕망을 충족시켜 우리를 행복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노년기의 발달 과제인 자아 완성(시간의 통합, 공간의 통합)을 지원할 것이다.

노년기 주요 발달 과제인 자아 완성을 너무 무겁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자아 완성은 위대한 영혼이 이룬 거룩한 성취를 기리는 말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관리하여 이룬 성과를 일컫는 말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일기 쓰기 또는 메모하기를 통해 하루의 삶을 관리하고, 편지 쓰기를 통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고, 더

6) 아동이 자신의 잠복적, 현재적 신경증과 불안을 놀이를 통해 해소한다면, 노인 역시 자신의 신경증과 불안을 문예 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생애사 쓰기를 통해 가깝거나 먼 과거의 삶에 소소하지만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모두 자아 완성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될 수 있다.

노년기의 기본 덕목이 지혜이다. Erikson & Erikson(1982/2020)은 지혜는 그 어원을 볼 때, ‘보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쓰는 행위는 대개 어떤 주제를 마주 보는, 응시하는, 그려 보는, 꺼내어 보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쓰는 행위는 지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은 오래 넓게 세상을 경험한 자로서 벌써 지혜를 갖춘 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때의 경험이란 즉각적인 것이어서 지금의 자리에서 차분히 되돌아 볼 때에야 비로소 미래를 조망하는 지혜를 형성하게 된다. 김수영·모선희·원영희·최희경(2017: 94)은 “노인이 지혜로운 것은 오랜 삶의 경험과 상실을 통해 성장해 왔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혜를 낳은 ‘성장’과 ‘통찰력의 발달’의 배후에는 ‘경험에 대한 성찰’이 있었을 것이고, 글쓰기, 글읽기 행위가 이러한 성찰을 도왔을 것이다.

노인은 저하된 신체 기능과 능력의 퇴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래 노인 질환을 다루어온 전문의들은 노인들이 보여주는 특정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노년의 초월(gerotranscendence)’⁷⁾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91-192)은 스웨덴 옅살라대학의 라르스 토른스탐(Lars Tornstam)과 그의 동료들이 정의한 ‘노년의 초월’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7) ‘노년의 초월’의 일상적이고 범박한 용어는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김수영 외(2017: 99)는 “75-80세에 이른 노인은 가장 적응적인 집단”인데, “노인은 젊은 시절과 청년기에 효과적이었던 대처기술을 활용하며 변화에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이란 용어는 노년기에서 만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드러내기에는 그 의미역이 너무 협소하다.

간단히 말해서 노년 초월은 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즉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초월은 성숙과 지혜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중략) 초월한 개인은 우주의 정신과 보편적으로 교감하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다. 이 경험은 시간, 공간, 삶과 죽음에 대한 재정의이며 자기에 대한 재정의이다. 또한 초월한 개인은 물질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홀로 ‘명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초월한 개인과 우주와의 교감은 아이와 어머니의 교감으로 읽혀진다. 개인과 우주,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로서의 개인이 자신에게 물질과 생명을 제공한 모태로서의 컨텍스트로 돌아갈 때 겪는 경험이 초월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초월한 노인은 우주, 어머니, 컨텍스트로 회귀하면서 ‘명상’에 잠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이때 문예 활동은 명상의 앞뒤에서 명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조용히 음미할 구절 찾기, 잠언을 읊조리기, 명상할 내용과 명상의 결과 메모하기와 같은 매우 최소화된 문예 활동이 명상의 앞뒤에 배치될 수 있다.⁸⁾

노년의 초월에 대해 말하였지만, 노년의 초월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이를테면 뭔가를 상상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97-198)은 “나는 노년에도 여전히 우아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들을 활성화해 그 단어들을 역동적인 행동 요소로 만들고 싶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8) 라르스 토른스탐의 보고서에서는 초월한 개인들의 경험을 다섯 개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 다섯 번째에서는 “자기에 대한 의식은 상호 관계를 맺고 다양한 타자를 포함하면서 확대된다.”(Erikson & Erikson, 1982/2020: 193)라고 묘사하고 있다. 나는 벌써 타자 속으로 흠어져 그들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다. 문예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참여자 간 또는 노인과 청소년 간의 문예적 교감은 이러한 인식과 느낌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transcendence(초월)’가 ‘transcendence’로 활성화될 때 노년의 초월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transcendence’는 “놀이, 활동, 기쁨, 노래 같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능들을 되찾는 것이며”, “예술가의 언어를 이끌어낸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토록 깊고 의미 있게 말을 걸 수 없다.” Erikson & Erikson은 ‘transcendence’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놀이, 활동, 기쁨, 노래를 들었지만, 나는 여기에 글쓰기, 글읽기를 추가하고 싶다. 특히 글쓰기 활동은 노년의 초월을 돕고, 노년의 초월에 생동감을 부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의 글쓰기는 Rorty(1989/1996)의 용어를 빌면, ‘새로운 언어의 창안’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노인을 ‘대담한 시인’으로 만들 것이다.⁹⁾ 대담한 노인 시인이 창안한 새로운 언어는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정신적 선물이다. 이 창작물은 노인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동세대 및 후세대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Foucault(2001/2007: 325)는 영적 훈련, 고행, 자기 수련 등은 “신의 이성”에 부합하는 평정이라는 지고의 초연함을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평정’과 ‘초연함’은 노년의 초월의 중요한 자질이다. 노년의 초월은 훈련, 수련 등과 같은 어떤 정신적 활동을 요구한다. 한편 “신의 이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Foucault의 진술대로라면 “참된 담론의 주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Foucault는 ‘노년의 초월 - 고행 - 문예 활동(경청하기, 읽기, 쓰기, 말하기)’을 연결하는 중요한 발언을 한다. Foucault(2001/2007: 359)는 “담론의 참된 주체화인 고행의 항구적인 근간이 되는 바는 경청, 독서, 말

9) Rorty(1989/1996)는 언어의 유연성, 자아의 유연성을 주장한다. 유연성은 자연스럽게 고유성을 낳는다. 모든 노인의 삶은 고유성, 개별성, 유일무이성, 대체불가능성, 반복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노인이 자신의 삶과 그 삶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노인은 잠재적 시인이며,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다. 김정우(2014)는 비문해 상태를 벗어난 노인들이 쓴 시를 치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가 ‘새로운 언어’로 빛나고 있다. 이들은 예외적 노인이 아니다. 모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국어교육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한다는 사실과 관련된 모든 기술(技術)과 실천입니다. 경청하고 적절하게 들을 줄 알기, 적절히 읽고 쓰기, 적절히 말하기 바로 이것들이 참된 담론의 기술인 고행적 실천이 늘 동반해야 하는 항구적인 근간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요약하면, 1)평정과 초연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행이 필요하다. 2)경청하기, 읽고 쓰기, 말하기는 이러한 고행을 위한 항구적이고 핵심적인 기술과 실천이다. 노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평정과 초연함’이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예적 실천과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 필요하다. 그러나 Foucault의 어떤 발언은 수정이 필요하다. 문예 활동은 고행이 아니다.

노년기 삶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은거’일 것이다. 은거에는 자발적 은거도 있고 강요된 은거도 있다. 삶의 공간을 멀리 떠나는 적극적 은거도 있겠고, 삶의 주변에 머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소극적 은거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은거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형태는 ‘자발적인 소극적 은거’일 것이다. 이러한 은거 형태는 관여와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삶의 방식이 아니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95)은 바람직한 은거의 방식으로 “깊숙이 관여하는 초탈”, “일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조용하면서도 깊숙한 관여, 지속적인 인식적·정서적 참여,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서의 이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은거의 삶을 우리는 향유적·여가적·면학적 독서와 글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은 향유적·여가적·면학적 독서와 글쓰기를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면으로 흘러들어오고 내면에서 퍼져나가는 마음의 상태를 조용히 음미할 수 있다. Foucault(2001/2007)가 자기 돌봄의 한 형식으로 ‘은거’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왜 많은 선인들이 ‘은거하여 독서하기’, ‘은거하며 창작하기’를 소망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¹⁰⁾ 국어교육

10) 물론 여기서 선인이란 당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읽기와 글쓰기

은 노인들이 은거하여 향유적·여가적·면학적 독서와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 태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노년기의 절망, 문예 활동을 통한 극복

노년기의 핵심적 병리인 절망은 노년기에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의 미발달에서 파생되었다고, 미발달을 계승 또는 내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절망을 줄여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이조적 항인 ‘기본적 불신(유아기) → 수치심과 의심(유년기 초기) → 죄책감(놀이기) → 열등감(학령기) → 정체성 혼란(청소년기) → 고립(청년기) → 침체(성인기)’를 마주하여 치유할 필요가 있다. 독서 치유 논의¹¹⁾ 또는 문학 치유 담론¹²⁾은 이러한 이조적 항의 극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글 읽기를 통한 상처 마주하기, 글쓰기 또는 창작하기¹³⁾(시, 자서전, 회고록, 생애

에 능숙했던 또는 글읽기와 글쓰기를 향유했던 선인을 의미한다.

- 1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치유 논의에는 이재기(2021), 이지영·김경화(2018), 임성관(2012, 2017) 등이 있다. 이재기(2021) 논의는 노년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지만 독서의 자기 돌봄 기능으로 제시한 ‘구조 담론의 구축’, ‘굽어보는 시선의 형성’, ‘은거하여 읽기의 즐거움 누리기’ 등은 다른 세대보다 노년기에 더 잘 이룰 수 있다. 한편, 대개의 독서 치유 논의는 문학 치유 논의의 성과를 이어받거나 그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독서 치유와 문학 치유는 동일하게 회고·해석 행위가 갖는 치유의 기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둘의 소통성과 관계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국에는 둘의 경계가 사라지거나 흐려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 12) 문학 치유 담론의 논의 성과는 매우 두텁다. 특히, 한국문학치료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논의는 ‘글읽기를 바탕으로 한 노인 치유 담론’을 구축하는데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13) 김정우(2014)는 문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비문해 상태를 벗어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 창작을 통한 치유 양상을 기술하는 한편, 전문 시인이 창작을 통해 어떻게 삶의 의지를 회복하였는지를 살피고 있다. 박진희·윤가현(2009)은 생애 회고(life review) 기능에 주목하면서, 생애 회고가 과거의 갈등적 상황(스트레스 사건, 외상 경험)을 재조명하고 분석하여 해결함으로써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해경(2019)은 자서전 쓰기의 특질로 정체성 탐색, 기억 고백과 과거 마주하기를 들면서 이러

사 쓰기 등)을 통한 상처 치유하기가 그 예이다.

Erikson & Erikson(1982/2020)은 이조적 향, 이조적 잠재력, 여기서 파생된 상반 감정은 동조적 향, 동조적 감정과 함께 모두 인간의 적응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동조적 향의 안티테제들(기본적 불신, 수치심과 의심, 죄책감, 열등감, 정체성 혼란, 고립, 침체, 절망)은 내가 당시의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의 절망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 안티테제가 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기술, 기억하는 것을 그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자신을 격려하거나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글읽기를 통해 나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인물을 목격하고, 그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과 내 행동의 유사성을 발견할 때, 나는 내 과거의 침체와 우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거리를 두고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이조적, 상반적 경향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지점이 성찰적 글쓰기나 회고적 글쓰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나의 침체와 우울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의 우연성, 사회적 흐름과 제도의 우연성이 낳은 하나의 사고(事故)임이 드러날 때 과거의 침체와 우울은 조금 더 수용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지난 시기의 나의 침체와 갈등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의미화하고, 한 사회를 정신적, 정치적으로 쇠신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를 계발시키는 창조적 글쓰기와 창조적 해석은 개인적 갈등을 사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글쓰기와 글읽기 훈련을 받은 어떤 노인에게서 이러한 창조적, 혁명적 글쓰기를 발견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

한 특질이 노인의 정체성 형성과 자존감 회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자서전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김수정(2021)은 '이야기 정체성'과 '자기 돌봄'에 주목하여 노인의 생애사 쓰기가 갖는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그밖에 노인의 자서전 쓰기를 다룬 논의에는 박성희(2017), 임순철·김혜란(2015), 지행중·한정란·박성희(2011) 등이 있다.

이기도 하다. Bakhtin의 ‘고유성’ 개념이나 Rorty의 ‘우연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의 모든 노인은 고유한 갈등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유한 상처를 안게 되었다고 볼 때, 그 갈등의 고유성, 상처의 고유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쓰여진 창조적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뒤에는 우리가 가두어두거나 방치하고 지나온 많은 사건, 사람이 있다. 가둠과 방치는 퇴행이고, 이러한 퇴행은 당시의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의 발달 과업인 자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건, 사람은 내 삶의 일부로 수용하여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수용, 수궁, 납득,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마주하기 과정에서 글읽기, 글쓰기는 매우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¹⁴⁾ 글읽기, 글쓰기는 때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과거의 사건·사람의 성격과 의미를 변형시켜 과거 삶의 어느 단계에서 미발달로 남겨준 과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각 발달 단계에서의 이조적 경향이 이전 단계에서의 발달 미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과제 해결은 노년기의 이조적 경향인 절망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¹⁵⁾

14) 자서전 쓰기나 생애사 쓰기 등은 자기 고백의 장르이다. 고백은 “감추고 있던 치부나 슬픔을 타인에게 공개하겠다는 암묵의 약속이며 자신조차 외면해온 자신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이혜경, 2019: 534). 이혜경(2019)은 척추장애를 가진 한 70대 노인이 쓴 자서전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노인은 자신의 척추장애가 생긴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그 사고가 누구의 나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가두어 온 사건을 고백하게 되고, 거리를 두고 마주하게 됨으로써, “사건은 그 진위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으며 사람과 삶을 원망하지 않아도 될 객관적 시선을 갖추게 되었다(이혜경, 2019: 536).”

15) 노년기의 절망은 이전 단계와 연결되어 있다. 즉 “약화된 자율성, 잃어버린 주도성, 사라진 친밀성, 홀대받는 생산력, 무시당한 정체성”(Erikson & Erikson, 1982/2020: 100-101)이 노년의 절망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이전 단계의 이조적 경향을 성찰·회복함으로써 자아 완성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방법론을 이어받은 많은 정신 분석가는 자유 연상, 꿈, 놀이 등을 통해 치유의 단서를 마련한다. 글쓰기, 글읽기에도 많은 치유의 단서들이 잠복해 있다. 문학 치유 담론은, 글쓰기와 글읽기가 치유의 통찰을 낳는 성찰의 과정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하고 있다.

정신 분석의 치유 과정과 문예 활동의 치유 과정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누군가)과 만나야 하는데, ‘환자-정신 분석가의 만남’ 양상과 ‘환자(필자, 독자)-텍스트의 만남’ 양상이 비슷하다. 2)치유를 위해서는 고착된 사건과 만나야 하는데, ‘정신 분석가를 매개로 한 환자-고착된 사건의 대면’과 ‘텍스트를 매개로 한 필자·독자-고착된 사건의 대면’이 유사하다. 이와 같이 치료를 위한 만남과 대면에서 텍스트는 정신 분석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3)치유를 위해서는 자료의 분석이 필요한데, 정신 분석가는 환자의 경험·꿈·환상을 분석하고, 필자·저자는 자신이 쓰거나 읽은 텍스트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정신 분석가와 필자·저자는 동일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분석 결과의 수취인이 다를 뿐이다. 정신 분석가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나 필자·독자는 스스로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앞의 1)~3)에서 알 수 있듯이 문예 치유와 정신 분석 치유는 매우 유사한 치유 구조와 양상을 보인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60)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환경에는 네 가지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①반듯하게 누운 자세를 줄곧 유지함, ②얼굴을 마주보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함, ③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배제함, ④정신 분석가의 침묵을 견뎌냄. 이러한 치료 과정은 글읽기·글쓰기가 직조하는 시공간과 닮아 있다. 예컨대, 서 있지 않음(①), 텍스트 외 다른 대상의 인식을 피함(②), 타인과의 대화를 배제함(③), 침묵을 견뎌냄(④)이 그러하다. 이 요소들이 기억과 전이를 통해 유아기 초기 탐색을 돕는다고 하는데, 글읽기·글쓰기에서 이들 요소는 상처와 아픔의 시작점 또는 저장소로 필자와 독자를 이끌 것이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88)은 노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특별

한 방법이 있을까를 자문한다. 그러면서 “마음과 의식과 정신이 담긴 만남”을 제안한다. 그리고 “관심과 섬세함이 담긴 손”의 사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만남과 손길일 때, 고립, 절망을 느끼는 노인들을 섬세하게 돌보고 위안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이다. 품위 있고 섬세하며 마음과 정신이 담긴 만남의 방식으로 우리는 문예 활동을 매개로 한 접촉을 생각할 수 있다. 글쓰기를 돕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 함께 글을 읽고 대화하는 활동은, ‘손길을 통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훌륭한 메타포로서 ‘언어를 통한 영혼의 접촉’을 상상하게 한다.

노년기의 절망 극복과 관련된 중요한 담론 중의 하나가 ‘성공적 노화’ 담론이다. 김수영 외(2017: 101)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 논의는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노년상에 대항하여 노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제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담론”이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노인의 인지적 기능 상실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현상이나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회복되거나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가족이나 주변의 지원이다. 김수영 외(2017: 100-101)는 “가족과 친구, 지역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도움이 노년기에 당면하는 많은 종류의 상실을 완충해 주는 효과가 있다. 주변 사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공적 노화를 논의하면서 지나치게 외적 측면(생활 방식, 신체의 건강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영성, 주관적 만족감, 자기 개념 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김수영 외, 2017: 101).” 문예 활동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성공적 노화 논의의 일면성, 편향성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성공적 노화를 내적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하다 보면, “교육받은 중산층,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관점”(김수영 외, 2017: 101)이라는 비판

을 받을 수 있다. 문예 중심 프로그램도 충분한 성찰이 없으면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은 노년층(문예 활동 수행의 인지적 어려움),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년층(글쓰기, 글읽기, 대화하기 등의 물리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자서전 쓰기가 프로그램일 때, 교육 수준이 낮거나 한글을 깨치지 못한 노인에게는 구술 자서전 쓰기가 적합할 것이다. 또한 시 낭송해주기, 서사 텍스트 읽어주기 등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

노년기의 절망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노인 스스로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이는 노년의 정체성의 확립,¹⁶⁾ 자아 완성과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으면 앞과 뒤, 위와 아래를 보는 시선을 확립할 수 없다. 인생의 발달은 ‘자기 중심 → 타자 중심 → 자기 중심’과 같이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여 자기 중심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노년기의 자기 중심성은 타자 중심을 거쳐 획득한 것이기에 유년기의 자기 중심성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의 자기 중심성이 어떤 조화와 균형을 갖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예 활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글쓰기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자기를 중심에 정위(定位)할 수 있으며 이때 노년기 성인은 박탈감과 상실감에서 벗

16) 서사 텍스트 읽기, 서사 텍스트 쓰기를 정체성 형성 또는 확립과 관련짓는 논의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Ricoeur의 영향이 크다. Ricoeur(1985/2011: 471)는 “삶 전체에 걸쳐 동일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서사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야기 하기 또는 이야기 쓰기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배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질적이고 모호한 시간은 이야기를 통해 이해가능한 단위로 묶이”게 된다(김지혜, 2021: 270). 이런 논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Erikson & Erikson이 청소년의 발달 단계로 제시한 ‘정체성 확립’에서의 정체성 개념과 Ricoeur가 말한 ‘이야기 정체성’에서의 정체성 개념은 그 의미역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미확립된 정체성을 노년기에 재확립할 수 있다는 점, 노년기의 자아 완성에서 Ricoeur가 말한 서사적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서사 텍스트 읽기와 쓰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너그러움, 균형, 조화를 지닌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

III. 노인 문예 활동 프로그램의 지향과 원리

II장에서는 Erikson & Erikson의 논의를 좇아 노년의 발달 특성을 자아 완성과 절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아 완성을 강화하고 절망을 극복하는 데 문예 활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문예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때 실천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문예 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과 공간에서 여가적·면학적·사회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이다. 문예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노인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연구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⁷⁾

- 노년기 문예 활동의 의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 노년기 문예 활동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탐색
- 노년기 문예 활동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¹⁸⁾
- ‘노년기-성인기-청소년기’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예 프로그램 개발
- ‘노년기-청소년기’이 함께 하는 ‘봉사학습’ 형태의 문예 프로그램 개발
- ‘봉사학습’ 문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17) 한편 지원 층위는 1)노인 전문 필자 및 전문 독자(문예 전문가) 양성 교육, 2)노인의 문예 활동 지원 또는 돌봄, 3)노인 문예 활동 공동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 김정우·김은성·김지혜·박종훈(2018)이 수행한 ‘어르신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재는 실제 많은 문화원과 복지센터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조사한 남영신·김슬옹·서현정(2019)에 따르면 노인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예 활동 프로그램 담당 전문가(기획·운영·교육) 양성·연수
- 문예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¹⁹⁾

이 글의 II장이 노년기 문예 활동의 의의를 탐색한 데 의미가 있다면, III장에서는 문예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커뮤니티)의 지향과 문예 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 문예 활동 공동체의 지향

1) 동질 세대 간,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의존성 강화

이 글에서 제안하는 문예 활동 프로그램은 ‘지역 문예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지역 문예 공동체는 1)가까운 지역에 사는 구성원(노인, 청소년)이 2) 글쓰기, 글읽기, 대화하기 등의 문예 활동을 중심으로 3)상호 지원·교류·봉사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즉, 노인 간 또는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문예 활동을 중심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이다. 여기서는 누구나 기꺼이 노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고, 참여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품고 노인들을 대한다.

문예 활동에서 표현되는 노인의 기억은 다른 세대에게는 상당히 낮설 수 있다. 이 기억은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서로 다른 반응을 만나면서 노인의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노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할 것이다. 같은 노인 세대는 공감의 반응을 보일 것이며, 청소년 세대는 문화적 낯섦으로 호기심을 보일 것이다. 이해경(2019: 541)은, 기억·경험 서술자(노인)에게 보이는 이러한 공감과 호기심은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내적 자신감을 부여하고 세계

19) 이때의 기관에는 정부(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립국어원), 국어교육 관련 학회, 국어 교사 양성 기관(사범 대학, 교육대학), 초·중등학교(국어 교사, 국어 학습자), 지역 사회(지방자치 단체 및 문화원·복지센터·지역도서관·노인교실) 등이 포함된다.

와의 소통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Erikson & Erikson(1982/2020: 99)은 “아이들은 노인들과 만나면서 고유한 방식으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품성을 기르게 된다.”고 말한다. 문예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시대 간의 소통은 노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00)은 “가족 간의 단절이 노인들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참여 부족은 노인들을 심리 치료의 대상으로 내몰기도 한다. 문예 활동 중심의 작은 커뮤니티는 세대 간의 소통과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다. 예컨대, 노인의 구술 자서전 경청하기, 노인 자서전 공동 창작을 위한 면담하기와 대화하기, 책 읽어주기(노인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이 노인에게), 책을 소재로 대화하기(독서 모임) 등이 이러한 소통과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Erikson & Erikson의 설명 방식에 따르면 희망은 기본적 신뢰와 기본적 불신의 갈등에서 기본적 신뢰가 우세할 때 생겨난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다면 희망은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는 잃어버린 낙원을 영원히 되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약속을 품고 궁극적인 타자-어떤 형태의 숭고함으로든-와 마주하게 될 순간까지 계속된다(Erikson & Erikson, 1982/2020: 124).” 노년기에 만나는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타자이거나 그의 오래된 염원을 실현해 줄 사람(궁극적인 타자)라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만남의 개연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예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은 모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rikson & Erikson(1982/2020: 158)은 심리사회학의 용어인 ‘대상 관계’를 언급하면서 “온전히 사랑받을 만하며 자신의 사랑에 호응해줄 사람을 찾는 아이들의 탐색은 여러 세대의 공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한다.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와 아이가 되어가는 어른은 모두 온전한 사랑을 주고, 자신의 사랑에 호응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마음일 것이다.

다양한 문예 프로그램에서 노인과 노인, 노인과 후속 세대(노인의 자녀와 손자녀, 이웃의 아동과 청소년)가 기꺼이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된 사랑이 호응을 얻어 세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때, 여러 세대는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

문예 공동체 참여는 곧 사회 참여이기도 하다. 김수영 외(2017: 138-139)는 사회 참여를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 또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녕(well-being)은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인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등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립, 노인의 지역 사회 내 통합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김수영 외, 2017: 139). 노인은 다양한 문예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노인 또는 다른 세대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2) 봉사학습에서의 상호성(봉사하기, 봉사받기) 강화

문예 활동 프로그램은 ‘봉사학습’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깊이 기대하고 있다. 문예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학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예 봉사학습’을 정의하면, ‘학생이 학교의 국어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의 문예 활동을 돕는 활동’이 될 것이다. 선주원(2011: 125)은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을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학습”, “나중의 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한 것을 봉사 활동에 활용하는 것’과 ‘봉사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은 서로 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나 학습과 봉사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는 “봉사학습은 봉사 활동을 학습과 연계시킴으로써 어린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봉사 활동의 수혜자인 학교 및 지역 사회에 의

미 있는 변화를 가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²⁰⁾

문예 활동이 봉사학습의 형태일 때, 노인은 대체로 봉사하는 사람보다는 봉사를 받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 문예 활동을 깊이 들여다보면 새로운 관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서전 쓰기 활동이 봉사학습 형태로 진행된다고 볼 때, 구술 자서전의 청중, 자서전 쓰기 전 노인 구술의 청중, 자서전 쓰기를 위한 면담하기의 청중, 출판된 자서전을 읽는 청중은 모두 청소년이다.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말하는 자이고, 청소년은 이를 듣는 자이다. 청소년이 노인의 경험, 지식, 지혜를 듣는 과정은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봉사를 하는 사람은 노인이고, 봉사를 받는 사람이 청소년이다.²¹⁾

그러나 구술 내용을 전사하여 자서전을 쓰고,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쓰는 행위 주체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역시 봉사하기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 쓰기, 논픽션 쓰기, 수필 쓰기, 전기문 쓰기, 기행문 쓰기와 같이 국어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격적인 장르의 글쓰기 활동에서는 청소년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²²⁾ 따라서 봉사학습 형태의 문예 프로그램은 ‘봉사받기’, ‘봉사하기’라는 봉사의 상호성이 전제되어 있다.²³⁾

20) 선주원(2011)은 봉사 주체를 ‘초등학생’으로, 봉사 대상을 ‘유치원생, 소외된 초등학생, 요양병원 노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 활동 유형으로 ‘옛 이야기 들려주기’, ‘이야기 만들어 들려주기’, ‘이야기 만들기(공동 창작)’을 제시하고 있다.

21) 이렇게 볼 때, 노인의 문예 활동 참여는 곧 노인의 봉사 활동 참여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노인은 인생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자원 봉사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삶의 보람과 만족을 얻어 노년기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이웃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김수영 외, 2017: 147-148)라는 진술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22) 학습과 삶의 연계성 확보, 학습 내용과 삶의 맥락의 관계성 강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를 강조하는 논의가 많은데, 청소년 학생들의 노인 문예 활동 참여는 이러한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23) 문예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자신의 역할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여타의 노인 봉사 활동이 갖는 여러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문예 프로그램 참여는 “퇴직으

〈표 1〉은 자서전 쓰기의 유형에 따라 봉사의 방향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낯선 유형인 ‘자서전 쓰기(청소년)’의 진행 과정, 거기서 봉사의 상호성이 실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은 청소년이 노인의 자서전을 쓰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²⁴⁾ 그러나 김수정(2021)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서술자, 면담자, 참여자)이 노인(서술 대상, 피면담자)과 그 지인, 가족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서전을 쓰는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 사례를 참조하면, 청소년(서술자, 면담자)이 노인(서술 대상, 피면담자)과 노인의 가족, 지인, 이웃을 면담한 후, 면담 자료를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노인의 자서전을 쓰는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면담 능력, 창작 능력이 요구되므로 문예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자서전 쓰기의 목적이 사회적 인정과 문학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잘 아는 한정된 공동체가 노인이 가진 기억, 노인에 대한 타자의 기억을 보유·기록·공유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일반 청소년이 참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의 자서전 쓰기에서도 ‘봉사의 상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의미 있는 타자(가족, 지인, 이웃)가 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노인 역시 가족·지인·이웃에게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에게는 노인이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 자서전 쓰기에 참여한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게 된다. 결국 노인, 청소년, 가족·지인·이웃이 서로의 정체성 형성과 확립에 기

로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고, 소외감을 극복하고, 사회에 유용한 존재라는 사회적 가치성을 느끼게 하여 긍정적인 자기상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봉사하여 사회 복지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노화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김수영 외, 2017: 146)

- 24) 물론 청소년이 서술자인 경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문 필자가 서술자가 되어 쓴 전기문은 많다.

여하는 ‘봉사의 상호성’을 구현한다.²⁵⁾

〈표 1〉 자서전 쓰기에서 봉사의 방향성

자서전 쓰기 유형		구술 자서전 ²⁶⁾ 쓰기	자서전 공동 창작하기	자서전 쓰기 (청소년)	자서전 쓰기 (노인)
봉사의 방향성	노인 → 청소년	• 구술하기	• 구술하기 • 면담에 응답하기	• 구술하기 • 면담에 응답하기	• 자서전 들려주기 • 자서전 읽어주기(합독)
	청소년 → 노인	경청하기 녹음하기 전사하기 편집하기	질문하기 경청하기 정리하기 재구성하기 편집하기	말 걸기 해석하기 정리하기 창작하기 편집하기	청자되기 (경청하기) 독자되기 (응답적 반응하기)

2. 문예 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원리

1) 경청하기 원리

Erikson & Erikson(1982/2020: 60, 69, 139)은 “유아가 엄마와 눈을 맞추는 관계 형성이 모든 인간의 심리 발달과 생존에 필수적인 ‘대화’라고” 말한다. 엄마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만남에서 아이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얻는다. 이러한 만남의 요소는 “일생 동안 결정적인 만남이 있을 때마다 다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존재론적 가치가 입증된다.” 나와 눈을 맞추는 엄

25) 김수정(2021)은 노인 자서전 쓰기가 서술자(대학원생)의 자기 돌봄에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만일 서술자가 청소년이 된다면 노인 자서전 쓰기가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26) 뿌리깊은 나무에서 발행한 『민중 자서전』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민중 자서전』은 한국 구술사의 한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모든 노인이 두렵든 앓든 자신의 자서전을 갖는 꿈을 꾀다. 노인의 기억은 한 개인의 기억이면서 한 세대의 기억이기도 하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에서 대체불가능하고 반복불가능한 한 점의 시공간을 점유했던 어떤 개인의 고유한 기록이기도 하다. 노인을 위한 구술 자서전 쓰기가 하나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손길이 필요하다.

마, 온통 나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엄마, 나의 표정과 나의 의미 모를 소리를 읽으려고 애쓰는 엄마. 우리는 살면서 이런 엄마의 재현으로서의 타자와 대화할 때, 행복감, 만족감을 느낀다. 문예 활동에서 ‘경청하기’를 강조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술 쓰기, 문어 쓰기 전 구술 듣기, 쓴 글 공유하기, 작품 낭송하기, 작품 읽어주기 등 대부분의 문예 활동은 ‘경청하기’를 포함하고 있다. 문예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그와 따뜻한 눈빛을 나누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며, 그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를 때, 누군가는 그에게 “최초의 모성적 타자”이며, “궁극적 타자”가 된다.

2) 맞춤형 원리

노년의 성격 변화와 성격 유형에 맞는 문예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윤진(1996)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성격 변화를 1)내향성과 수동성, 2)조심성과 경직성, 3)우울 성향, 4)회상 성향, 5)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6)성역할 지각 변화, 7)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8)의존성으로 정리하고 있다(윤진, 1996; 김수영 외, 2017: 95-96 재인용). 회상 경향은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사물 또는 공간과의 내밀한 만남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삶의 유한성을 상쇄할 의미 있는 창작품 쓰기 프로그램 등이 적절할 것이다.

Reichard(1962)은 55~84세의 백인 남성 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년기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성격 유형을 1)성숙형, 2)흔들의자형, 3)무장방어형, 4)분노형, 5)자학형으로 분류하고 있다(Reichard, 1962; 김수영 외, 2017: 97-98 재인용). 노년기의 성격 유형에 따라 적합한 문예 활동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숙형은 자아 완성을 이루고 노년기의 기본 덕목인 지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타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창작 활동’이 적합할 수 있다. 흔들의자형은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도서를 정해서 조용히 읽고 음미하는 ‘여가적·면학적 독서 활동’이 적합할 것이다. 무장방어형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므

로 낭송과 토의가 중심이 되는 ‘독서 클럽 활동’이 어울릴 것이다. 분노형과 자학형은 심리사회적 위기 중 ‘절망’을 경험하면서 ‘경멸’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전 단계의 이조형을 차분하게 마주하고, 극복하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3) 장르 다양성 및 계열성 원리

현재 노인들이 참여하는 문예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문예 장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²⁷⁾ <표 2>와 같이 장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접근성 정도에 따라 가까운 장르, 다소 먼 장르, 상당히 먼 장르로 구분하여 참여자 수준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참여자의 문예 수준에 따라 현재 가까운 장르 범주에 배치한 어떤 장르는 다소 먼 장르 또는 상당히 먼 장르로 수용될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참여자에게는 상당히 먼 장르에 배치한 교양서, 학술서 등이 가까운 장르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회고록 쓰기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어떤 수준과 범위의 회고록 쓰기를 요구하느냐 따라 장르의 접근성은 달라질 것이다.

<표 2> 텍스트 목적과 접근성에 따른 장르 구분²⁸⁾

텍스트 목적	가까운 장르	다소 먼 장르	상당히 먼 장르
정보 전달	일기(기록), 편지나 엽서(축하, 소식), 소개문, 안내문, 유언장, 메모, 논픽션, 기부증서, 자서전(고백과 기록), 회고록(기억과 기록) ²⁹⁾	인물평, 신간 안내, 안내판, 계약문, 요리책, 여행 안내책자, 광고문, 서평, 독자 편지, 계약서, 예절 관련 책자, 사용지침서, 전기문(사실)	보고서, 회의록, 기안문, 교양서, 학술서, 지역인문지리지

27)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예 활동은 ‘자서전 쓰기’이다. 김정우 외(2018)가 개발한 ‘어르신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은 비교적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치유와 성찰을 위한 자기서사 쓰기 프로그램’은 ‘일기, 편지, 노래 가사, 수필, 소설’(읽기 장면)과 ‘일기, 편지, 포토 에세이, 리스트’(쓰기 장면)를 포함하고 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 향유 프로그램’에서는 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를 기준으로 다양한 시를 배열하고 있다.

28) 장르 구분 및 장르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는 상위 장르와 하위 장르가 섞여 있기도 하다.

설득	일기(성찰), 편지나 엽서(사과, 교육), 독자 투고, 지원서, 신청서, 청원서, 맹서, 상속 증명서, 유언장, 자서전(성찰과 전언)	칼럼, 서평, 광고문, 성명문, 선전문, 연설문, 연극평, 영화평, 인물평, 결의문, 설교문, 합의서, 서약서, 진단, 전기문(교훈), 회고록(교훈)	논설, 연구보고서, 사설, 논문, 교양서, 학술서
친교	일기(가족 일기), 편지나 엽서(애정 표현, 조문), 메모, 농담, 인사말, 송사, 답사, 초대장, 고백문, 격려문, 사과문, 감사문, 항의문	수상 소감	대중 연설문, 비망록
정서 표현	시, 수필, 개인 서사, 지역 서사, 동화, 우화, 연대기	소설, 신화	시나리오, 희곡, TV드라마 대본

한편, 노년기의 발달 단계 특성에 따라 문예 활동의 목적을 <표 3>과 같이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자아 완성 강화와 지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예 활동과 절망, 경멸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 문예 활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노년기의 발달 단계 특성에 따른 문예 활동의 목적

노년기 발달 단계 특성	자아 완성-지혜 (강화와 공유)	절망-경멸 (극복과 회복)
문예 활동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하기 ○ 표현하기 ○ 창작하기 ○ 연결하기 ○ 설계하기 ○ 확장하기 ○ 공감하기 ○ 향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하기 ○ 꺼내기 ○ 마주하기 ○ 고백하기 ○ 풀기 ○ 수용하기 ○ 인정하기 ○ 성찰하기

- 29) 국어교육에서는 회고록, 생애 서사, 자서전 등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Zinsser(2006/2022: 115)는 다음과 같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인생 전체를 다루는 자서전과는 달리 회고록은 인생 전체를 바탕으로 하되 그 대부분을 무시한다. 회고록 작가는 이를테면 어린 시절처럼 삶에서 각별히 강렬했던 시기나, 전쟁과 같은 사회적 격변에 둘러싸였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구분하면, 회고록 쓰기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강렬하고 인상적인 삶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표 3〉에 제시한 발달 단계별 특성에 따른 문예 활동의 목적은 여러 문예 치유 담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물론 현재 ‘절망-경멸’ 단계에 설정한 기억하기, 꺼내기, 마주하기 등은 ‘자아 완성-지혜’ 단계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표현하기’, ‘창작하기’ 역시 ‘절망-경멸’ 단계에서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동일한 장르의 문예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자 문예 수준에 따라 활동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 참여자가 활동에 부담을 덜 느끼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³⁰⁾ 예컨대 전체적으로 ‘글읽기’에서 ‘글쓰기’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글읽기 활동은 ‘읽어주기-직접 읽기/대화하기-독서 토의’, 글쓰기 활동은 ‘구술-지원 또는 공동 창작-직접 창작’과 같이 지원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지원 정도가 ‘낮음’이나 ‘높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낮은 노인(지원 정도 ‘높음’),³¹⁾ 교양 문식성·고급 문식성 수준에 있는 노인(지원 정도 ‘낮음’)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될 때, 문예 프로그램

30) 참여자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고려하면, ‘통합성의 원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예 활동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우 외(2018)는 1)사회적 소통을 위한 맞춤형과 어휘 프로그램, 2)치유와 성찰을 위한 자기서사 쓰기 프로그램, 3)세대 간 갈등 극복을 위한 화법 프로그램, 4)세상으로 나아가는 시 향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 이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하나의 기관이 노인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분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영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기관 12개 중에서 10개 기관이 통합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이지영·김경희(2018) 연구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보면서 노인이 보인 반응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1)한국적인 생활문화로 해석하기, (2)민간 신앙과 사회적 통념으로 연결 짓기, (3)연륜으로 정립된 가치관과 신념 드러내기, (4)시대상을 반영한 유년 시절의 자전적 회고, (5)가족과의 관계 드러내기, (6)삶의 상처와 아픔을 표현하기로 정리하고 있다.

램의 외연이 넓어질 것이다.

〈표 4〉 지원 정도에 따른 활동의 차이

지원 정도	높음	보통	낮음
글쓰기의 경우 (자서전 쓰기)	구술 자서전 쓰기(노인의 생애 기술을 청소년이 녹음하여 그대로 전사하기)	서술자(청소년)이 서술 대상(노인)에 대한 정보(노인의 구술, 면담 내용, 주변 인물 면담 내용)를 바탕으로 자서전 쓰기	노인 스스로 자서전 쓰기
글읽기의 경우 (작품 읽기)	청소년이 노인에게 작품 읽어주기(들려주기)	청소년이 노인의 삶,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해주고 노인이 직접 읽기/또는 작품을 같이 읽고, 작품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대화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형태의 해석 텍스트 쓰기/또는 동료 노인과 함께 작품을 읽고, 작품 내용을 소재로 토의하기

IV. 맺음말

우리가 어릴 때 모성적 보살핌에 의해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듯이 이제 노인은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람에게 대한 신뢰감을 쌓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노인은 이제 어린이가 되었고, 어린아이가 된 노인을 보살필 그의 어머니는 이제 없다. 그러니 노인의 모성적 보살핌을 받아 성장한 우리가 이제 노인의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보살핌의 역할 전환이 순조로울 때 개체는 물론 종도 안녕하고 행복할 것이다.

노인의 안녕과 행복을 돌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문예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아 완성, 일관성과 완전함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데, 글쓰기와 글읽기는 과거와 현재 경험을

연결하여 기억의 일관성을 돕고, 지난 삶에 대한 완결성을 체험하도록 한다. 노년기의 자아 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지혜와 노년의 초월이다. 지혜와 노년의 초월은 노년기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성찰, 마음의 평정과 초연함을 유지하려는 인식적·심미적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과 인식적·심미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예적 실천과 기술이다.

노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절망은 노년기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전 시기의 미발달에서 파생한 것이거나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 시기 미발달의 양상인 불신과 수치심, 죄책감과 열등감, 정체성 혼란, 고립과 침체 등을 마주하여 극복하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문예 활동이 미발달 또는 퇴행을 꺼내고, 마주하고, 고백함으로써 수용, 수궁, 납득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노년기 문예 활동과 관련해서 국어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노년기 문예 활동의 의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노년기 문예 활동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탐색, 노년기 문예 활동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문예 활동 프로그램 담당 전문가(기획·운영·교육) 양성·연수, 문예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국어교육 학문 공동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어교육의 지평 또는 외연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 국어교육이 공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평생 교육으로 확대될 것이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국어교육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예 활동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만남과 교섭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노년기 문예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의 외연 확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는 하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인 지향은 국어교육이 노년기의 여가적·향유적·면학적 문예 활동을 일상화, 활성화시킴으로써 노년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년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피해야겠고, 노년을 희망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겠지만 노년에 대

한 사회문화적 에토스가 부정적인 우리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노년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말들을 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두 글에는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은유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어떤 과정과 노력에 국어교육, 문예 활동이 항상 있을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그것은 회상 속에 떠올리는 긴 생애에 대한 피드백을 허락해준다. 세월이 지날수록 회상은 점점 포괄적이 되고 지나간 장면과 행동들은 더욱 생생해진다. 때로는 아득했던 일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기억 속에 떠오른 과거의 장면과 경험이 우리를 압도하기도 한다. 마음과 정신이 과거에 고착되는 제9단계에서는 흔히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일출과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방이 바위와 덤불로 뒤덮인 좁은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게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 내딛는 걸음마다 풍경은 더 넓게 트이고 천천히 변하는 하늘과 구름이 시야에 들어온다(Erikson & Erikson, 1982/2020: 200).

노년이 긍정적 시기, 완결의 시기를 구축하게 되고,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개인이 평생 따라야만 했던 이 긴 실천의 최고 정점을 구축하게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단념한 정치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고한 자,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중략) 노인은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자,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자기 내부에 설정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노인은 자기 자신을 향유하는 자이고, 또 길고 긴 자기 실천을 통해 잘 준비되었다면 노년의 도달점은 세네카가 말하듯이 자아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지점,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지점이며,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완숙하고 완결된 지배 및 만족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중략) “이제 늙기 위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서 평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늙기 위해 살 필요가 있습니다 (Foucault, 2001/2007: 143-145).

- * 본 논문은 2022.04.29 투고되었으며, 202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2.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수영·모선희·원영희·최희경(2017), 『노년 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수정(2021), 「생애사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돌봄'과 '이야기정체성'-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생애사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8(2), 435-458.
- 김우창(2006), 『이성적 사회를 위하여』, 서울: 민음사.
- 김정우(2014), 「노년 세대의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 『문학교육학』 44, 73-106.
- 김정우·김은성·김지혜·박종훈(2018), 『어르신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서울: 국립국어원.
- 김지혜(2021), 「노년 시대를 위한 서사 교육의 설계와 방향」, 『독서연구』 60, 263-297.
- 박성희(2017), 「노인 자서전 쓰기에 나타난 생애사 학습의 의의」, 『질적탐구』 2(1), 181-204.
- 박진희·윤가현(2009), 「노년기의 생애회고와 긍정성 효과」, 『한국노년학』 18, 107-122.
- 남영신·김슬옹·서현정(2019), 『어르신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선주원(2011), 「어린이 서사 문학을 활용한 봉사학습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47, 119-147.
- 이재기(2021), 「재난의 일상성, 독서를 통한 자기 돌봄의 탐색」, 『독서연구』 60, 37-61.
- 이지영·김경화(2018), 「노인 독자의 그림책 독서 실행 연구-문식 입문 수준 노인 독자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46, 67-106.
- 이혜경(2019),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인문도시기원사업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41, 529-552.
- 임성관(2012), 『노인을 위한 독서 치료 1』, 파주: 시간의물레.
- 임성관(2017), 『노인을 위한 독서 치료 2』, 파주: 시간의물레.
- 임순철·김혜란(2015), 「노년기의 자기 재현으로서의 자서전과 정체성 형성」, 『한국출판학연구』 41(3), 11-132.
- 지행중·한정란·박성희(2011), 「노인 자서전 쓰기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노년학』 31(2), 223-241.
- 태선경·민지훈(2012), 「'자아 통합' 추구를 위한 노인 독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독서연구』 28, 352-395.
- Erikson, E. & Erikson, J. (2020), 『인생의 아홉 단계』, 송제훈(역), 서울: 교양인(원서출판 1982).
- Foucault, M. (2007),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역), 서울: 동문선(원서출판 2001).
- Ricoeur, P. (2011), 『시간과 이야기 3』, 김한식(역), 서울: 문학과학지성사(원서출판 1985).
- Rorty, R. (1996),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김동식·이유선(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1989).
- Zinsser, W. (2022), 『글쓰기 생각쓰기』, 이한중(역), 경기: 돌베개(원서출판 2006).

노인의 행복한 삶을 돌보는 국어교육 — 노년기 문예 활동과 청소년 봉사학습을 중심으로

이재기

인생의 단계에서 노년기가 가장 길며, 전체 인구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는 행복과 불행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문예 활동이 노인의 행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 완성 대 절망'이란 대립 향으로 구성된다. 자아 완성을 토대로 출현하는 기본적 덕목이 '지혜'이고, 절망을 토대로 출현하는 핵심적 병리가 '경멸'이다. II장에서는 자아 완성을 강화하고, 절망을 극복하는 데 문예 활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하였다.

III장에서는 문예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지향과 문예 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문예 활동 공동체의 지향으로는, 1)동질 세대 간,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의존성 강화, 2)봉사학습에서의 상호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예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원리로 1)경청하기 원리, 2)맞춤형 원리, 3)장르 다양성 및 계열성 원리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에릭슨, 노인, 행복, 문예 활동, 자아 완성, 봉사학습, 돌봄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Care for the Happy Lif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Literary Activities in the Elderly
and Youth Service Learning

Lee Jaeki

Old age is the longest period of life,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in the total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particular, old age is a critical period when happiness and unhappiness can be expressed in extreme ways. This study explored how literary activity in old age can support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psychosocial crisis of old age consists of a confrontational term called 'integrity versus despair.' The basic virtue that emerges based on integrity is 'wisdom', whereas the core pathology that emerges based on despair is 'disdain'. Chapter II discusses specific examples of how literary activities can help strengthen integrity and overcome despair.

Chapter III focuses on the orientation of the community in which literary activities take place and the principles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iterary activity program. The following orientations of the literary activity community are proposed: 1)strengthening interdependence between homogeneous and different generations, and 2)strengthening mutuality in service learning. In addi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of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literary activity program are proposed: 1) the principle of listening, 2)the principle of personalized learning, and 3) the principle of genre diversity and hierarchy.

KEYWORDS Erikson, Old Age, Well-being, Literary Activity, Integrity, Service Learning, Care